

117th MAYDA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17주년 노동절 기념 자료집]

LABOR
DAY



★장소: 대학로->서울시청광장

★시간: 5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117th MAYDA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프리다칼로와 디에고가 참가했던 메이데이 사진>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가 체르노비치에서 예심판사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의 소리가 매섭게 외쳤다 기립하시오 당신도 이것은
인터내셔널이요!” - 브레히트의 시 '예심판사 앞에 선 16세 봉제공 엠마 리이스'

목차

■ 알자 알자! MAYDAY~ *^^*

- 03 | “메이데이”의 역사
08 | “인터내셔널가”에 대한 소고 -오범준

■ 117th MAYDAY! 우리 이것을 이야기 해요

- 12 | 불안정 노동 철폐 - 문우편집위원회
16 | ‘부서진 미래’의 조각 맞추기, 비정규직 노동 -이지언
18 |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 -류하경
20 | 여성노동 - 여성주의 네트워크 헬리스
23 | 청년노동 문제 -송준모
26 | ‘탈정치’를 말했던 총학생회, 그러나 너무나 정치적인 -박자물
28 | 우리의 겨울은 연세제관학교의 봄을 위한 시간이었다 -썸
32 |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한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35 |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일상의 국가살인을 중단하라 - R4

■ MAYDAY에 켜 한권 어때요?

- 37 | “레즈를 위하여”(황광우, 장석준) - 유후-

■ MAYDAY OF THE WORLD

■ MAYDAY 그림하나, 기억하나

■ 알자 알자! MAYDAY~ *^^*

메이데이의 역사

한약 그대가 우리를 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크의 최후전술 중-

1. 메이데이의 유래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이면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다. 또한 이 날은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 노동자 투쟁의 날,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다. 그리고 그 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시간의 쟁취와 유혈적인 경찰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미국의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크고 작은 공업도시에서는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확인하는 메이데이 행사가 상대적으로 펼쳐졌다. 그 이후 100여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메이데이는 평화로운 기념일로 지켜 온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져왔다.

1) 19세기 말 미국의 노동자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사회의 모든 물질적 재화를 생산한다. 노동자는 고대사회의 노예처럼 ‘말하는 도구’로서 물건취급을 받거나 중세사회의 농노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는 토지와 인신적 예속에서 해방되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모든 부를 생산해 내었으나, 자신이 생산한 노동의 과실을 결코 누릴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굶어 죽을 권리’만을 가진 또 하나의 노예생활, ‘임금노예’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9세기 후반은 각국의 자본주의가 독점화와 제국주의의 시대를 맞고 있던 시기로서 생산력 발전과 자본 규모의 거대화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진행되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고도화되어가고 있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890년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체 국민의 1/8의 사람들이 차지했고, 최상층의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50%를 차지하던 최하층의 총소득보다 많았다고 한다. 850만명 정도 되던 노동자들은 매일 14-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정도의 저임금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처지의 노동자들은 서서히 자신의 잠재된 힘을 깨닫으며 인간 이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무산자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조직된 힘으로써 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하이 마켓'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은 1820-30년대 미국에서 10시간 노동제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어, 1937년에는 연방정부 노동자에 대해 10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856년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휴식'이란 슬로건으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운동은 확산되었다.

마침내 1884년 미국의 노동조합연맹은 4차 총회에서 1886년 5월 1일부로 미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8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8시간 노동제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서는 5월 3일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시카고 경찰은 맥도믹 리퍼 작업소에서 파업 중이던 비무장 노동자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5월4일 무정부주의 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 시카고 지부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이마켓 광장에서 조직했고 여기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집회에 대기 중이던 180명의 무장경찰이 집회대오를 향해 해산을 강요하던 중 경찰 대오 안에서 폭탄이 폭발하였고 경찰 7명이 즉사했다. 이에 흥분한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 혹은 부상자의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후 시카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체포공세로 8명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동교사' 및 살인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정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잔혹 행위는 극심한 노동운동 탄압공세 속에 묻히게 되었다.

앨버트 파슨스, 오거스트 스페이스, 조지 영겔, 아돌프 피셔, 루이스 링, 마이클 슈왈,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 등 이른바 시카고 8인(Chicago Eight)은 극도로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불공정한 재판에서 8명 전원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집회에서 연설했던 앨버트 파슨스와 오거스트 스페이스, 그들의 동료 조지 영겔과 아돌프 피셔 4인은 1987년 11월 처형당했다. 역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루이스 링은 처형 직전 감옥에서 자살했고, 종신형을 받았던 마이클 슈왈, 사무엘 필덴, 오스카 니브 등은 1993년 사면으로 풀려났다.

3) 메이데이의 탄생

1889년, 세계 20여개의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에서는 그 창립대회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차 아래 8시간 노동제의 수립과 상비군을 국민군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국제 노

동법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프랑스 노동조합의 지도자 레몽 라빈느의 제안을 받아들여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미국 노동총동맹이 같은 날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던 8시간 노동일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첫번째 메이데이 행사는 이러한 제2인터내셔널의 결의에 입각하여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일의 쟁취라고 하는 공통의 요구를 위해 투쟁을 벌임으로써 그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이후 메이데이는 매시마다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당면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는 국제적 기념일로 치뤄지게 되었다.

2. 한국의 메이데이

1) 1920~30년대의 메이데이

"비둘기에서 자라온 자라에서 물진으로 급진화하는 세계 노동운동의 대세는 그 전무 방법이 일일총 교묘를 기하여 혹은 백병 혹은 돌항쟁 혹은 일제 시위 등 실로 천차 만별의 전술을 발명하였도다. 가히 5월 1일의 만국 노동자 시위일은 세계 노동운동의 연방식(連邦式)이라 가위할 것이라 각국의 일반 노동자가 일제 단결하고 시일(時日)에 휴업하며 혹은 행렬 혹은 연설 등 방법으로 현 사회의 자본주의적 왕국에 유박(有縛)은 실로 일제 장군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로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4일자 시설 중)

한국에서의 노동절은 일제 치하에 있던 192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노동자들은 1920년 3월 1일 민중항쟁 이후 3월 22일 노동자 대회를 열었으며,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를 중심으로 5월 1일 조직적인 노동절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 노동자들은 감옥 같은 기숙사에 갇혀 노예노동을 강요받았다. 23년 노동절 행사는 비록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 속에 열리지 못하였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절 행사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는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이후 24년 건설된 조선 노동총동맹은 25년 '8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의 확정, 소작료와 지세의 지주 부담, 동양척식회사에 의한 일반 농민의 조선 이민 반대, 언론 집회의 자유 개방'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 대구 강경 홍원 진주 광주 군산 나주 진영 함흥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절 투쟁을 성사한다. 그리고 25년 4월 조선 민중들의 민족 해방과 노동의 해방의 염원을 담은 조선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노동절 투쟁은 좀 더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제는 더욱 강하게 노동절 행사를 봉쇄한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6년부터 노동절은 전국노동총동맹의 지도 하에 총파업, 가두 투쟁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더욱 강력하게 진행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바뀌게 된다. 전세계적인 공황 속에 일본 제국주의는 31년 일본의 만주 사변 37년 중일 전쟁을 도발하며 전쟁과 새로운 식민지 개척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의 탄압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었다. 1931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기간 노동 운동으로

1759명이 검거되었다. 탄압으로 조선노동총동맹은 무력화되었으며, 조선공산당은 28년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37년 조선병참기지화 이전까지 매년 전국 각곳에서 '일제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노동절 투쟁은 동맹 파업, 가두 투쟁으로 진행되었다. 함흥 홍남 광주 평양 원산 군산 진남포 북청 청진 인천 울산 왜관 거창 안동 주을 김해 등이 대표적인 투쟁 지역이었다.

2) 해방이후의 메이데이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민중들은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금 급속하게 투쟁의 조직, 해방의 조직을 건설한다. 1945년 9월 조선 공산당 건설, 11월 1194개 노조 50만명 노조원의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건설된다. 46년 노동절 행사는 조선 공산당, 전평, 경성 평의회, 공동 주최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20만 노동자가 참여하여 성대히 치루어졌다. 이외에도 인천 대구 논산 삼척 등 전국 10여 곳에서 수천에서 수만명까지 참여하는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46년 5월 9일 마-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남한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노총 등의 우익 반공 단체들을 동원하여 전평 조선 공산당 등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조직 분열 공작을 진행한다. 전평은 이에 대항해 46년 9월 철도노동자의 파업을 시작으로 25만 이상이 참여하는 9월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는 미 군정과 친일파 세력의 폭정에 시달리던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100만 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10월 항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은 무장 경찰, 반공단체들을 동원해 철도파업 현장을 가습, 파업을 파괴하고, 전평 조선공산당 등의 활동가 1400여명을 검거함으로써 46년 민중들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그리고 47년 5월의 제 2차 마-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남한의 단독 선거를 준비하게 된 미군정과 반공 친일 세력들은 더욱 무자비하게 민중들의 자주적 민주적 대중조직들과 정치 조직들을 백색 테러와 정치 공작으로 파괴해나간다. 이러한 가운데 전평은 48년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27 총파업 투쟁을 벌여내기도 하였으나, 48년 미 군정이 전평을 불법화함에 따라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게 되고, 47년 3월 제주 4.3 항쟁, 48년 10월 여순 반란사건 등 극악한 백색 테러 공안탄압을 거치며 완전히 무력화되기에 이른다. 결국 48년 노동절은 전평에 대한 탄압과 미군정의 지원하에 성장하던 대한노총 단독으로 치루어지게 되었다.

3) 빼앗긴 메이데이

18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메이데이는 대한노총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한노총은 투쟁하는 메이데이가 아닌 기념행사로 메이데이투쟁을 전락시켰으며, 메이데이 기념행사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등의 물계급적 행태 또한 벌이기도 하였다. 1967년 이승만 대통령은 메이데이의 노동자계급성을 거세하고 참된 의미를 되찾이기 위해 메이데이 날짜를 변경하도록 대한노총에 지시했다. 이에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전신)의 결성일인 3월 10일로 메이데이 날짜를 변경하고 이를 '노동절'이라고 불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불법화하고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대체하였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라는 최소한의 자각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 수많은 노동자만증을 몰아넣었다. '노동자'라는 말 속에 역사적으로 녹아있던 변혁 해방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주체의 의미는 근로자라는 말 속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주체 수출 역군의 주체 피지배자라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산업화 프로젝트 반공주의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굴종과 초

과착취를 강요하는 이태을로기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근로자의 날' 기념사에서 열심히 일한 '모범 근로자'를 뽑고, 자본가들에게는 '금은탑 산업훈장'을 주며 자본가와 협조주의를 고취하기도 하였다.

4) 다시찾은 메이데이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잠재력을 서서히 키워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7년 '7.8.9 대투쟁'을 거치며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이땅의 역사 발전의 주인임을 이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리하여 그 거대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빼앗긴 메이데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산발적이고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80년 중반부터 선진 노동자들에 의해서 존재해왔다. 그리하여 1989년 5월 1일 제100주년 메이데이(정확히는 99주년이었다)를 앞두고, 전국회의 아래 걸집한 이 땅의 민주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함으로써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자랑스런 노동운동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마침내 1994년 정부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였다. 물론 정부와 자본은 5.1일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여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부, 자본에 대한 투쟁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였지만 그것은 한낱 헛수고일 뿐이었다. 이미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는 수년간의 5.1절 투쟁을 통해서 자울 수 없는 노동절 정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3. 4.30 청년학생 투쟁

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은 노학연대 민중연대 그리고 학생운동의 선도적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워왔다. 특히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에게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노동자 운동과의 연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었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맞서 싸우는 청년학생들의 연대, 청년의 기세와 해방의 과학으로 무장한 선도적 투쟁은 94년 이후 430 청년학생투쟁대회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갔다.

430 청년학생투쟁대회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 5월 1일 노동절에 앞서 청년학생들이 가장 급진적인 요구와 목표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투쟁을 진행하는 자리로 94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4월의 투쟁들을 4월 말로 집약시켜내고, 노동자 민중과의 강력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 바로 430이다. 말하자면, 4월 30일은 청년학생들의 노동절인 셈이다.

인터내셔널가에 대한 소고(小考)

오 범 준
tagong88@hanmail.net

메이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메이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화를 기다리는 초조함, 만나기 직전의 설렘이 연인들의 마음이라면 메이데이를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나게 즐길 것인가를 작업장에서 고민하면서 지내는 노동자의 마음 또한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기본적으로 메이데이는 축제이다. 세계의 노동자가 자신의 인권을 선언한 날인 동시에 억압받는 이들의 모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네 민족이 춤과 노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잔칫날에 모여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분모이다. 인터내셔널가(Internationale)는 메이데이라는 세계인의 잔칫날을 더욱 흥겹고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풍악 중 하나이다.

인터내셔널가는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라고 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만큼 그들이 노동자가 된다는 가설 하에 생일축하 노래만큼이나 인터내셔널가가 불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근거 없는(?) 가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지라 필자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인터내셔널가의 유래를 따지자면 이 노래의 작곡자인 외젠 포티에(Eugene Pottier)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파리 코뮌이 붕괴하던 1971년, 한 자치구의 위원장이었던 외젠 포티에가 쓴 시로 출발해서, 한동안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에게서 라 마르세예즈의 곡조에 맞추어서 불려졌다. 그러다가 노동자 출신 음악가인 피에르 드제이테가 지금 듣는 인터내셔널가의 곡조를 만들었고, 이 노래가 제 2 인터내셔널의 상징적 노래가 되면서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건설되면서부터는 한 나라의 국가가 되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인터내셔널가가 불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에서부터, 사회의 모순을 공부하고 바꾸려고 헌신하는 지식인들까지, 그 모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내셔널가가 불리고 불리어 온 세상에 퍼진 미시적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노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피터 밀러의 영화 <인터내셔널가, 역사와 전망>은 1936년 스페인의 전장에서 울려 퍼졌던 인터내셔널가를 재현 하면서 시작한다. 스페인 전쟁은 스페인의 내전이기도 했지만, 국제주의자들의 해방전쟁이기도 했다. 참전한 좌파 운동가들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 순간 어느 누군가가 인터내셔널가를 제 나라의 언어로 선창하자, 그 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인터내셔널의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며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구에 가서 어림 40개국에서 모인 투사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인터내셔널가를 합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인터내셔널가가 지금 순간에 마지막으로 불리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모습을 갈무리한 영상은 영화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는데 충분하다. 스페인 내전의 전사들의 우렁찬 목소리부터 마지막을 장식한 피트 시거의 고혹적인 인터내셔널가까지, 이 영화는 인터내셔널가의 탄생부터 이 노래가 어떻게 세계의 진보적인 싸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풍부한 역사적 배경과 인터뷰를 곁들여서 설명한다. 인터내셔널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화는 보는 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것이니, 시간 내어 한번 이 영화를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이 영화를 에피타이저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훌륭한 인터내셔널가 코스요리(?)를 먹고 싶다면 이 영화를 보고 메이데이 집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생일날에 한정되어있듯이,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게 그렇게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가장 인터내셔널가를 싣을 수 있는 날은 바로 메이데이밖에 없다. 메이데이를 100 퍼센트 즐기는 방법은 이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걷는 것이다. 혼자 필자는 이 방법을 권한다. 그러면서 인터내셔널가에 친숙해지면 전세계의 인터내셔널가를 한번씩 들어보는게 순서이다. 인터넷에서 인터내셔널을 검색하면 손쉽게 수많은 언어의, 수많은 형식의 인터내셔널가를 들을 수 있다. 80년대에는 사회과학 서점에서 밖에 민중가요 노래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지금의 세상이 좋긴 좋아졌다.

한국의 인터내셔널가는 3번 정도의 개사 과정이 있었다. 처음 인터내셔널가가 한국에 서 불렸던 시기는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1922년 일본에서 이 노래를 번역해서 부르기 시작했던 이후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이 가사를 그대로 쓰고 있고, '국제 공산당가'나 '국제가'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부르지는 않고 노동절같은 특수한 행사 때에만 부른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서슬 시퍼런 반공 독재정권하에서 잊혀져 가다가 80년대부터 민중음악 활동가들 사이에서 외국 인터내셔널가를 들여오면서 다시 복원되었다. 처음에는 '역사의 새주인'이라는 다소 어색한 제목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가사도 직역투이고 조약했지만, 어두웠던 시기를 밝히기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지금 부르는 인터내셔널가는 시인

김정환이 '노문연(노동자 문화예술운동 연합)'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번역한 것으로, 90년대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가 공연하면서 이를 정식으로 퍼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사는 이전의 가사들보다 혁명적이고, 원어를 한국말로 세련되게 조탁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훌륭한 평가를 듣고는 합니다.

이 밖에도 인터내셔널가의 가사는 각 나라마다, 심지어 동일 언어권에서도 다르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에서의 가사가 가장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 가사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가사를 수입해 사용하다가 전국단일노조 운동을 벌였던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들이 1900년대에 만든 새 가사가 표준이 되었다. 같은 영어권 국가임에도, 캐나다와 남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가사가 다르다. 앞의 가사는 묵독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구어체 문장과 딱딱한 단어 탓에 부르기가 힘든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래서 1990년 영국의 좌익 뮤지션인 빌리 브래그(Billy Bragg)와 미국의 저명한 포크가수인 피트 시저(Pete Seeger)가 젊은 활동가들이 부르기 쉽게, 현대 영어와 쉬운 단어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빌리브래그의 가사가 널리 통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가사를 쓰는 추세라고 한다.

독일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모두 대 여섯 가지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 가사를 번역하는데서 생긴 차이이기도 했고, 사상적 견해의 차이에서 의해서 가사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를테면 찬송가가 기독교 종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진보적 사회운동의 큰 축이었던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간의 교리(?)논쟁이 있었다는 것 일게다. 에스파냐 어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사가 다르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초기 번역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인'한 덕에 가사가 하나 밖에 없다.

어느 책에서 본 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동구유럽 출신의 유학생이 한 말이 기억이 난다. 인터내셔널가가 당신들(서유럽 사람들)에게는 혁명의 노래이겠지만, 우리에게선 압제의 노래였다고 하는 다소 냉소적인 말은 동구권 유학생의 반동적(?)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곱씹어 볼 점이 많은 것 같다. 인터내셔널가가 분명 진보적인 사회를 노래했고, 진보적인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른 인터내셔널가는 메아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런 노래가, 개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독점하고 민주주의가 용납되지 않은 소위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마치 한국의 '새마을 노래'와 같이 들렸을 것이다. 생각의 자유와 사상의 다원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만 인터내셔널가가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일까?

이 글을 쓰면서 이전에 필자는 이전에 보았던 글들을 다시 보고, 수많은 인터내셔널가를 다시 듣고 불러 보았다. 인터내셔널가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필자는 너무나 즐거웠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곡을 고르자면 앞에서 언급한 영화에서 나

온 제즈 풍 인터내셔널가와 피트 시저의 노래, 그리고 일본 자선 밴드 '소울 플라워 모노노케 서밋'이 부른 일본 축제 때 부르는 온도(音頭)풍의가 있다. 이박사가 부르는 인터내셔널가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한국어로 부른 최도은의 인터내셔널가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성악을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성악을 전공했으나, 민중음악 운동을 하는 최도은 씨의 우렁찬 목소리는 메이데이 때 듣고 싶은 노래 중 손꼽힌다.

그리고 인터내셔널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중에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를 때 해볼만한 좋은 것이 하나 있다. 민중가요에 추임새를 붙이듯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앞에서 '아지'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노래의 전주처럼 사용되는 아지(agitation)는 인터내셔널가를 부를 때 더욱 감칠맛이 나게 하는 요소이다. 맑스의 공산당선언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는 아지도 있고, 브레히트의 시 '예심판사 앞에선 16세 직조공 엠마 리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아지는 자신이 의미하는 '흥분'이라는 뜻만큼이나 노래 부르는 이의 마음을 흔든다. 짧게 몇 마디를 외치는 것보다, 싹이나 선언의 구절로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심지어 라틴어로조차 번역되어 있는 인터내셔널가는 분명 세계의 민요이다. 인터내셔널가 이외에도 수많은 노래가 많지만 집회에서 각기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진 사람이 모여 같은 리듬으로, 같은 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직 이 노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40만명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한국의 노동자로 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노동자의 국경은 없다는 맑스의 말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번 메이데이는 한국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축제가 되어선 안 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성별의, 인종의, 국적의 노동자들의 축제여야 한다. 그들이 한데 모여 제 나라의 언어로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며 거리를 걸을 때, 메이데이는 진정 화사한 축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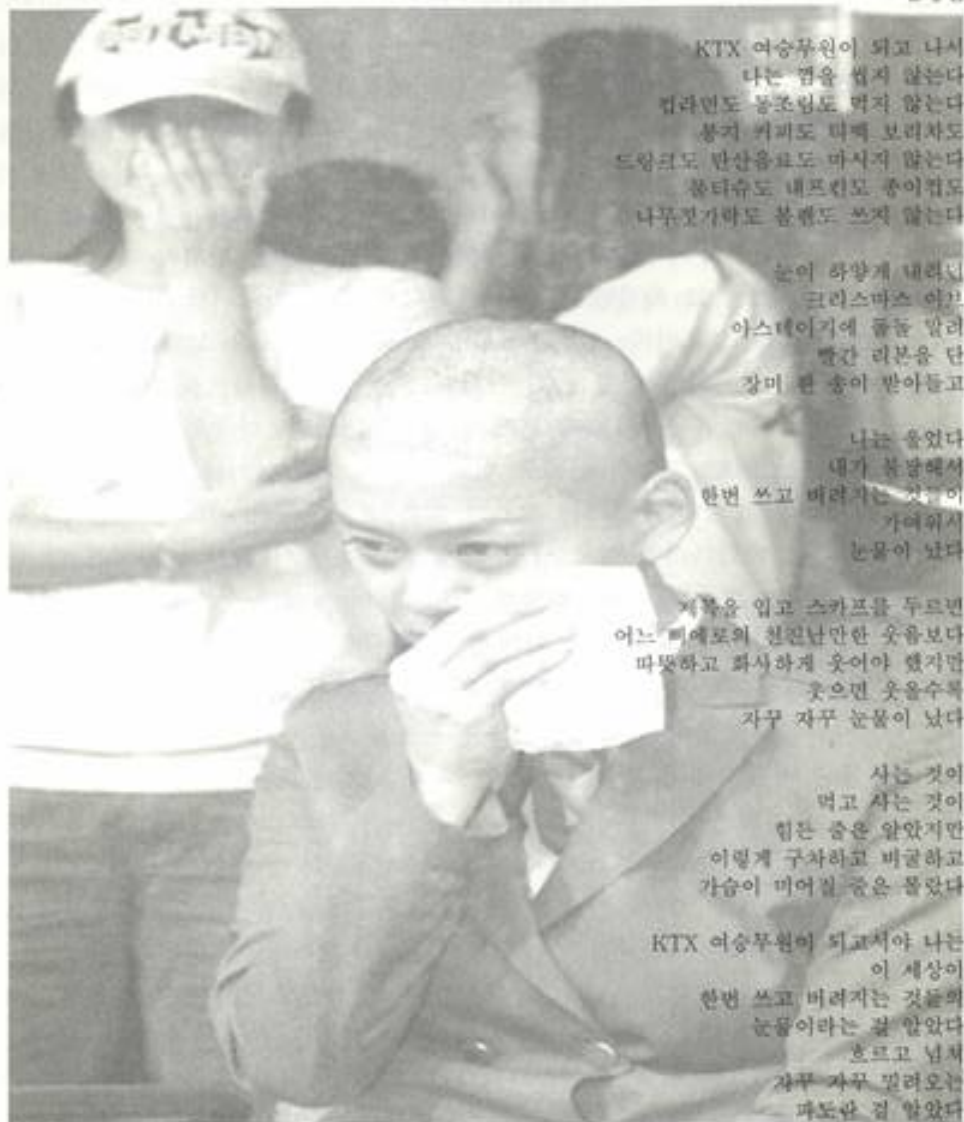
■ 117th MAYDAY! 우리 이것을 이야기 해요

‘불안정 노동 철폐!’를 외치자!!

문/우/편/집/위/원/회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김명환



1. 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

거침없이 하이킥의 준하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지내고 있다. 그들의 집은 그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한다. 그가 직장을 잡았다 금방 다시 잘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의 전공과 관련 없는 다른 직업들을 전전하며 자존심 상하는 에피소드들에 한 사람이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가 드러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산다.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권은 단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며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평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은 기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그리고 사회 전체로부터 존중받아야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 받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받는 일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2. 불안정 노동의 문제들

앞서 말했던 권리들이 모두 보장되었던 적은 역사에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스스로의 권리를 확장해 온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는 점점 더 앞서 말한 권리들이 잘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중심에 바로 불안정 노동이 있다.

불안정 노동이란 말 그대로 노동의 형태나 양상이 불안정한 것을 말한다. 보통 비정규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단지 정규직이 아닌 노동을 넘어 고용형태, 노동의 질, 노동조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문제의식과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성격과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불안정 노동에는 보통 말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학습지, 레미콘, 골프장 캐디 등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 파견, 하청, 기간제 노동 뿐 아니라 청년실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실정인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이 과정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마음대로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가져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불안정한 삶' 그 자체다. 노동시장과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극단적으로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 강도의 강화, 노동 조건의 하락, 삶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불안정노동은 빈곤화되고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의 성과물을 다 원상태로 후퇴시키다 못해 억압할 수 없는 최소마저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이 '일반화'되어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다는 것인데 이미 60% 이상이 비정규직인 우리나라에서도 불안정노동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심각한 청년 실업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이라도 된다면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불안정 노동화는 또 한편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마저도 불가능한 형태로 노동 운동을 무력화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면서 산업예비군들에게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으라고 피터지게 경쟁을 시킨다. 또한 비정규직의 영역에서도 이중 착취¹⁾를 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인종/민족주의에 막혀 차별받고 착취 받을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 몸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 언제나 사회에서 잉여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서로 분할하고 경쟁시킨다. 이렇듯, 노동자들을 서로 분할하고 경쟁시킴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²⁾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불안정 노동층으로 흡수되고 계속되는 빈곤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3. 불안정 노동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불안정 노동이 확산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정부나 자본이 보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망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갖는 전망은 상반된다. 정부나 자본은 '대안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국사회의 체질개선만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세계화와는 다른 대안적인 세계화를 모색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전망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불안정노동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노동형태이고 신자유주의 시대는 계속해서 불안정 노동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전 시대인 케인즈주의 시절에는 정규직 고용과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의 보전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일정정도의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점점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 자본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안정노동화이고 흔히 신문에서 말하는 노동유연화인 것이다.

1) 자본에 대한 착취와 기성에서의 가사노동에 의한 착취

2)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면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직 노조를 비난하고 비정규직이 파업하면 거들떠보지 않거나 불참하면서 탄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체질개선 속의 불안정 노동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지배계급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주어진 것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것일까?

4. 불안정 노동 철폐! 를 외치자!

적절한 임금, 쾌적한 노동환경,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등은 허무맹랑한 이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온,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할 '노동'에서 행복과 가까워질 방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일자리를 생각해보자. 그러한 일자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가 하나 둘 씩 떠오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을 위한 '노동 유연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 즉 불안정 노동 철폐를 외치는 것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오는 첫걸음이자 대안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조금은 힘든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주위를 보면 함께 같은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 노동 철폐!**

‘부서진 미래’의 조각 맞추기,

이지연(yezzz@naver.com)

비정규직은 우선 직접 고용이나 정규직의 임시적 예외로서 고안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중간착취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에 등장한 파견법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 다시 말해 파견노동자가 맺는 파견사업주(고용) 그리고 사용자(사용)와의 삼각계약형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고용은 그 출발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의 제도로서 간주되었고, 파견기간이 2년 넘으면 노동자는 사용자(사용)에 직접 고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현실이 됐는데, 파견이 사내하청 또는 용역과 같은 다양하고 불법적인 형태로 위장한 사례는 건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됐다. 물론 노동부와 검찰은 소극적 방관으로 이를 부추겨왔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질병, 출산 또는 휴가로 인해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데, 단기간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독일의 경우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수준은 사실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머물러있다. 수당이나 퇴직금, 편하다.

복잡한 비정규직 문제, 임금만 놓고 따질 수는 없겠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의 이면엔 뭔가 다른 이유, 임금을 보상할 다른 혜택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임금 하락은 우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연결된다. 낮은 임금은 노동자에게 (그리고 사용자에게도) 장시간 노동의 필연적 동기를 강제한다. 이렇듯 과도한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특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빈민층을 탄생시키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산업재해보험 지원이나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 형태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동조건, 소득, 복지수준을 아우르는 사회적 지위를 구별짓는 잣대로서 굳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경험을 박탈당하고 있다. 6개월, 1년, 길게는 2년의 계약 이후에 다른 조건, 다른 일자리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불안정한 이동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약해지(또는 해고)로 인한 잦은 이동은 노동자들에게 고립과 단절된 경험을 강요하고 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변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꾸리고 있지만, 그것과 실제 노동조합 조직들 사이의 넓은 간극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거나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노동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설사 노동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휴대폰 문자 계약해지’ 따위로 해고되거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사용자(사용)에 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비정규직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와 함께 등장했지만, 또한 노동자 계급 내부의 차이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구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자체도 여러 형태로 구별되는데, 학습지교사, 간병인, 덤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들은 현재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여성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그리고 KTX 승무원 고용사례와 같이 성별 분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모순에 반대하기 위한 운동에서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하나는 현재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불평등에 대해 시급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자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동을 확보해나가는 것. 우리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 노동 형태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고, 그것은 청년 노동에서 보다 심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예비 졸업생들은 자신만큼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겠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정규직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다는 굳은 사회적 믿음에 불을 던지고,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

사학 02 류 하 경

어느 샌가 한국의 작업장에는 곳곳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무방비 상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행정직원, 시간강사, 미화, 보안, 기타 시설관리직 등 우리가 건물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들이다. 특히 미화, 보안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개선의 여지는 요원해 보인다.

현재 학내 비정규 노동자들은 수년 혹은 십 수년 씩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일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며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미화직의 경우 한달에 70만원 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개인당 할당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출근시간인 오전 7시보다 한두시간 가량 일찍 출근함으로 인해 피로도와 노동 불만족도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 월차, 연차, 생리휴가, 상여금, 야근수당, 산재보험 등의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에 상주하는 보안직의 경우, 한 달 3번의 휴일을 다 써버려 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정규 파견노동자라 함은 그 인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원청(학교)가 아닌 용역업체에 있어서 학교 측은 잔 임금과 느슨한 고용상태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통해 최대한의 자기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용역이라는 게 인건비 뜯어먹는 거라 우리가 받는 건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어느 미화직 아주머니의 말속에서 그들이 차압당한 “인건비”가 봉건제에 가까운 용역업체의 유지와 학교의 그 불투명한 재정축적에 기여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실제 인사과정에 있어서 원청인 학교의 지시와 입김에 의해 미화직 노동자들의 건물 간 이동이 빈번하고 있고, 작업과정에서의 학교 간부들에 의한 간섭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실질 고용주인 학교 측이 용역을 거친 불안정 고용을 통해 제 이익을 도모하는 명백히 위법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비정규 노동자의 미 조직화에 의한 단체행동의 부재로 인해 사용자 측의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해, 미화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세미가 없으면 혀로 닦으라.”, “나이 먹고 이런일 말고 할 게 어딴어?”, “집에서도 청소하는 거 나와서 하면 돈도 벌고 좋은거 아냐.” 등의 성별, 나이, 작업 성격에 대한 비하발언이 많음이 확인 되었다.

“최소한 인간답게 대우 받고 싶다.”는 아주머니는 이과대의 어느 건물 화장실

옆 좁은 공간에서 바가지를 뒤집어 엮은 위에서 웅크려 쉬고 계셨다. 이 곳은 이 작업장의 휴식공간이다.

등록금은 올해 8.7% 인상률을 포함하여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예술관련 학과의 이번 학기 등록금은 570만원이라고 한다. 건물마다 청소도구를 들고 우리 주위를 쉽게 지나쳐 가는 아주머니들의 일 년 평균 총임금이 780만원 가량이다.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모아도 그 단과대에서 제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늘어만 가는 이월적립금과 설립이후 재정 감사 한번 받지 않는 사립대들의 “좋은 날” 속에서 학내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지난 3월, 울산과학대에서는 비인간적 처우에 항의한 미화용역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한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있었다.

“우리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만 달라는 것이었다. 학교에는 정규직 미화원 5명이 있다가 일부가 정년퇴직하고 일부만 남아 있다. 그들은 월 250~300만원씩 받고, 우리보다 1시간이나 적게 일한다. 우리보다 늦게 출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보너스는 1000%다. 우리를 노예 부리듯 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했다. 우리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윤성호, 3월 9일자, “알몸대처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절규”

세상은 많이 민주화 되었다고 하고, 민주노조들의 과업으로 인해 작업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 왔다고 하지만, 지성과 교양의 산실이라는 대학공간에서 관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앞에서 아직도 어리둥절함을 금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성노동

여성주의 네트워크 앨리스
alice-ym.cyworld.com

보이지 않는 노동-재생산 노동

여성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역사 시기 시기마다의 경제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여성은, 노동을 가능케 하여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이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산 노동, 즉 먹고 자고 휴식하는 일에 소모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재생산 노동의 전담자로 기능하여왔다. 누군가 먹을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 자는 동안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누군가 아플 때 보살피 주는 재생산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규정된 어머니/아내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여성의 노동은 어머니의 모성 혹은 부인의 의무로 너무나 당연시되어 비 가시화되며 평가 절하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 내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임금을 창출해내는 노동만이 노동이며, 가치 있는 노동만이 임금을 받는다.'는 관념에 가려져 노동으로조차 대우받지 못한다.

통제받는 재생산 노동

이렇듯 평가 절하되는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무 임금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고리이기에 평가 절하되고 비 가시화되는 것이다. 엄마들의 과업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 이유는, 재생산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닌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하는 노동력이 상품이자 노동자의 경쟁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생산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자본과 국가가 긴밀히 연합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장려되고 통제된다. 재생산 노동의 핵심인 출산과 감정노동은 강력하지만 교묘한 이데올로기와 각종 제도들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었고 여성 스스로가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게 만들었다.

달콤한 휴식처? 누구에게?

가족은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체화하게 하는 기본적인 장으로 기능해왔다. 성인 남성 노동자는 직장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바로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끝이 있기에, 여우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돌아갈 곳이 있기에 노동이 고되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아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꽃꽂이 교실, 요리교실 등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를 제안하고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의 내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 가정 내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기 위한 기업의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

결혼하는 여성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을 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의 추세는 바로 가족의 위기로 규정된다. 국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한다. 아이들은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출산 장려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노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책을 내놓는다.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양육비 세제를 감면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달몬의 해결책으로서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여성인력을 활용을 증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라는 것이다. 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관리 대응책의 실상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구조적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을 활용하여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에 다를 아니다.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일해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인구를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 속에선 대부분의 가정은 더 이상 남성 가장의 임금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하여 일하는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질 부담이 없는'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받고 있다.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실상은 여성의 자기개발을 명목으로 혹은 여성의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돌봄 노동을 상품화하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간병인 노동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다. 즉, 관리는 소개소에서 받지만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이다. 하지만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은 간병 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선하기는커녕 민간파견업체를 양성하여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적 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현재의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이윤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질문들

바야흐로 민중들에 대한 폭력이 꽃처럼 피고 있는 계절이다. FTA에 반대한다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인 노동자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FTA는 타결되었으며 보호법으로 가장한 비정규직 개악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폭력과 빈곤의 세계화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폭력과 빈곤이 철저하게 성별화 되어있음을, 남성과 여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을 더욱더 뚜렷이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배세력은 위기를 운운하고 실체가 모호한 두려움을 자극하며 자신들만의 세계화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해야 한다. 그들이 운운하는 위기는 과연 누구의 위기인가? 그들이 그어놓은 대립구도는 우리의 전선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규정받은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폭넓은 연대이다. 다양한 권리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서로의 불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만남이 또 다른 권리를 부를 수 있는 마주침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 참고 자료

조주은, 「현대가족이야기」

호성희, 「사회적 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 (사회진보연대

<http://pssp.org> 여성위원장)

김원정,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여성의 삶 & 한미 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민주노동당 여성정책 연구원)

청년실업과 미래

세라믹공학 05 송 준 모

한 국과 같이 청년인구의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국가는 얼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사회 일반 실업률의 갑절이 되는 국가 역시 별로 없을 것이다. 고학력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사회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이들이 활발한 이직을 하며 업데이트 되는 삶을 추구하다보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청년실업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 시장의 인력수급 현황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시장일지도 모른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고 유동성과 완전고용이 보장되는 시장이 아르바이트 시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 시장에도 결점이 있으니 그것은 수요공급 곡선의 분리이다. 학원강사 등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극도의 유동성을 지닌 직종에서의 수요공급 곡선은 사용자의 마음대로 그어진다. 누구라도 직장생활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청년실업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그리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을뿐더러 노력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발표를 보니 직업재교육 내지는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케인즈식 처방을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처방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잘못 짚었기에 나온, 명백한 오진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혼란을 해소하였다고 생색을 내던 나치와 파시스트들이 떠오른다.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견지하며 케인즈식 대안을 내놓는 정부의 정신분열적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땅에 금괴를 묻어두어도 금괴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발굴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며 7.80 년대의 '평생고용' 문화에 익숙해진 청년들 앞에

놓인 것은 아르바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정규직 직장들이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재하는 사회에서 직장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보수보다는 안정성이다. 평생고용을 하는 '정식직장' 만을 바라보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난 청년들 앞에 놓인 것은 평생을 구인광고 속에 묻혀 살도록 만드는 비정규직 일자리들이다. 사용자의 입맛대로 근무여건이 좌우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억이 있는 청년들이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결국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아르바이트' 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 자리와 취직 직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확충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예 원인 파악 자체를 잘못된 것에서 나온 대책이거나 뽕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생색내기이다.

치솟는 실업률과 좁아지는 '좋은 직장' 의 문, 그리고 효과 없는 정부대책 앞에서 결국 청년들은 개인의 힘으로 돌파구를 만들려 한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니 말이다. 신입생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학점관리와 토익에 매진하는 풍속도가 연출되는 것은 시대가 강요한 것이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참고 견디며 돈을 벌며 공기업 취직이나 고시 준비를 하는 것이 한두 명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사회에 대한 모든 기대와 관심을 접은 채 안전한 미래를 갈구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바람은 그 결실을 맺을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개인이 자신의 상품가치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기업은 냉정하다. 자신에게는 좋은 학벌과 높은 토익점수가 인생의 전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일지는 몰라도 기업 입장에서 그는 수많은 조건 좋은 지원자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설사 간신히 입사의 문을 뚫었다 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야근과 추가근무의 검은 손길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문은 점점 좁아지고 문 뒤에도 천국은 없다. 살기 위한 노동이 어느덧 노동을 위한 삶이 된다. '경제대국'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이다. 이것이 현실이자 미래이다. 극소수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업의 늪에서 갈아져 가는 것이다.

청년 고용을 불모로 잡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뽑아 능력과 노력에 맞게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기업이 고용을 불모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한 월러스틴은 이를 기업의 협박이라고 일축하였다. 기업은 청년의 노동력과 미래를 짜낸 생각뿐이지 절대 그들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주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의 시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생각하여야 한다. 물론 모두가 도서관의 자리를 박차고 혁명의 전선에 나오는 말은 아니다. 변화는 모두가 조금씩 눈을 돌릴 때 일어난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노동자들의 시위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고 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단지 생각해 보라는 것뿐이다.

더 이상 청년과 노동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끝없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청년의 미래를 연료로 삼는 체제 속에서 새로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당신이 바로 미래의 노동자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신분열증을 고칠 의사도 당신이다. 현재는 기업사회 속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는 당신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어 그때 그 노동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또한 나는 세월이 지나 당신의 자녀가 오늘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던 이유를 듣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며 황당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탈정치’를 말했던 총학생회,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사회학과 05 김 선 명 수

총 학생회의 정말이지, ‘WOW한’ 상식. 아카라카와 연고제 때가 아니면 조용했던 연세 캠퍼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학내 곳곳에 경쟁하듯이 대자보가 나붙고, 평소 학생회 문제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을 내뱉었다. 바로 지난 3월 19일, 연세춘추 1면에 ‘총여학생회 대체 기구 검토 중’이라는 총학생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 놀라웠던 것은 춘추 기사가 보도되기 불과 4일 전에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던 총학생회가, 느닷없이 총여학생회를 폐지한다며 총투표 공고를 선언한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의 모임인 학운위를 완벽히 무시하는 것이, 그토록 ‘세계적 상식’을 운운하던 총학생회장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전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총투표 공고가 그만큼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한 총학의 독단적 결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이유가 어쨌든 간에, ‘총여 폐지’는 이번 총투표의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다. 총여학생회 폐지 문제로 학교가 한참 시끄러울 때, 딱 하니 등장한 것이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 장의 대자보로 4월 30일부터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총학생회에, 학생들은 어찌된 상황인지도 모른 채 ‘YES or NO’ 만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깨끗한 연세를 주문한다’던 당신, 그러나 남은 것은 ‘정치 꼼수’ 뿐. 지난 3주의 시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총학생회장의 직권 발의로 총투표 공고가 되었고, 회칙 개정안 전문도 발표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많은 학우들이 이번 총투표의 실행을 단순히 ‘총여학생회 폐지’, 혹은 ‘한총련 탈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보다 앞서 총여학생회 폐지를 선언한 총학생회장의 언론 플레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20년만의 학생회칙 개정’이라며, 마치 노무현과 같은 갑작 개정론을 선보인 총학생회는 왜 하필 총여학생회 폐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애초 ‘탈정치 총학생회’라며 출발한 WOW 총학의, 무섭도록 정치적인 ‘꼼수’를 읽을 수 있다. 스타벅스 커피만 마셔도 된장녀 소리를 듣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는 순간 곧 싸늘한 시선에 직면해야만 하는 한국 사회에서, ‘총여’를 없앤다는 사실 그 하나

만으로 충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었으리라. ‘총여 폐지’, ‘상급단체 가입 제한’을 앞세워 이번 총투표를 성사시키려는 총학생회의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는, 결국 회칙 개정안의 다른 문제점들을 은폐하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정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학생회장님,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과정이 어찌되었든 총투표는 다가오는 30일부터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회칙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총학생회의 약속은, 공청회의 번번한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학내 곳곳에 설치한다고 했던 의견 수렴함은 애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보름이나 지난 후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칙 개정안에 그 의견들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상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31일 언론출판협의회와의 공청회 제안을 거부한 이후에도, 4월 6일로 계획되어 있던 연세춘추의 공청회 제안조차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일부 정치 학생들로 방청석이 꼭 차고 편향된 분위기로 흐를 것’³⁾이라는 점. 그러나 총학생회에 묻고 싶다. 총학생회는 비공개 간담회가 아니면 참석할 수 없다고 춘추 측에 밝혔는데, 그것이 총학생회 회장이 말하는 ‘여론 수렴’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총학생회장이 누차 언급하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이라는 표현은, 총학생회의 회칙개정안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두 ‘총투표에 대한 조직적 기만행위’⁴⁾로 낙인찍는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총학생회의 태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그 어떠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탈정치’를 말했던 총학생회,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20년만의 회칙 개정’이라며, 한 나라로 치면 헌법과도 같은 총학생회칙 개정을 무섭도록 빨리 진행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정치 꼼수로 돌파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번 사건에서 그 둘은 정말이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깨끗한 연세를 주문한다’던 WOW총학생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욕했던 ‘영악한 운동권’들보다도 더욱 영악한 정치적 술수로 이번 총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3) 4월 6일, 총학생회장의 입장글 <언급 주관의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및 공개 토론회에 대한 안내>
4) 3월 31일, 총학생회장의 입장글 <총투표에 대한 조직적 기만 행위 및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우리의 겨울은 연세재활학교의 봄을 위한 시간이었다

천문우주학과 03 편

1 2월 24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연세대학교의 명물인 본관 앞 트리를 구경하러 왔던 서울시민들과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을 접하게 되었다. 휘황찬란한 트리 앞에는 촌스럽게 알록달록 꾸며진 천막이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일련의 무리가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도 많은지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었다. 그리고 천막에는 “연세재활학교 신축, 학칙개정”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적혀져 있었다. 도대체 추운 겨울 연세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복도학교’ 연세재활학교

연세재활학교는 1964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체특수학교이다. 장애인 교육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세재활학교’의 존재는 연세재단에게 있어 훌륭한 ‘홍보대사’였고, 수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게 되는 근거였다. 하지만 ‘최초’라는 화려한 명성 그 이면에는 연세재활학교의 어두운 현실이 은폐되어있었다. 연세재활병원 3층 한 칸에 위치하여 ‘복도학교’라고 불리는 연세재활학교는 60여 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이다. 연세재활학교는 학습 공간, 휴식 공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국의 장애인 특수학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평가받는다. 연세대학교 교정 내에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하나 없는 재활학교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학교로 은폐되어왔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초등부만이 개설되어있어 재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세재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집과 거리가 멀거나 치료시설과 멀리 떨어지는 등 악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중등부가 개설된 다른 특수학교를 찾아 갈 수밖에 없었다. 받아들여주는 학교를 찾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생존이다. 진학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곧 생존권을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찬바람을 이겨냈다.

연세재활학교 학부모들은 ‘중·고등부 개설’을 위해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대가로 2003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연세재활학교 신축관련 예산으로 52억원을 배정받는 성과를 얻어 내었다. 하지만 연세재단은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 재단의 거듭되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관련 예산을 2006년 예산으로 37억 가량 재배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연세재단 이사회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승인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세재단은 ‘중·고등부를 포함하는 형태의 재활학교 학칙개정, 행정절차 집행’ 등 신축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으며 재활학교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어렵게 받아낸 예산이 또다시 불용처리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들려오는 대답은 ‘재활학교는 돈이 안 된다.’였다. 자신들의 자산 증식에만 혈안이 된 교육 ‘자본’에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었다. 학칙개정이 늦어질 경우 신축 자체가 무산됨은 물론 곧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의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연세재단은 자신의 비용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아가 신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원했을 뿐이었다. 12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도 학칙개정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학부모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2월 18일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연세재활학교 신축을 위한 천막농성이 시작되었다. 연세재활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타대학 학생들, 장애인 인권단체, 지역 단체, 재활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천막 안에서의 겨울나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천막에서 2~3일 밤을 지새면 몸살이 나기 일쑤였다. 학부모(거의 대부분 어머니들이었다.)들은 장애아동들을 돌보며 힘든 천막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했다. 천막에서의 생활은 마음을 다잡더라도 지치기 쉬운 것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돈이 안 된다’며, ‘학칙개정 불가’를 천명했던 재단의 반응이 모든 사람을 분노하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급기야 12월28일 연세대학은 ‘재활학교 신축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통해 연세재활학교 농성단 투쟁을 마치 “헌신적인 재단에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행동” 인양 왜곡하며, 학칙개정 불가를 공표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공대위의 지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였다. 매일 같이 집회와 선전전을 하여 상황을 알려나갔다. 대부분의 활동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이었다. 문제의 발단인 연세재단과 연세대학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연세대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학교에 지지를 표명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늘어

갔다. 개인적으로 천막을 찾아오기도 하고 과반에서 학회에서 동아리에서 단대학 생회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독자적인 연세대 학생들의 연대체인 '공존'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재활학교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세대 정문 봉쇄 등 연세자본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연대, 지치지 않았던 투쟁의 결과로 1월 15일 마침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하는 재활학교 학칙개정'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 달에 걸친 농성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하지만 재활학교 투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건물의 설계조차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의 계획안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연세재단의 지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에 신축 전까지 한 학년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장애인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산재해있다.

우리들의 연대는 끝나지 않는다.

연세재활학교 투쟁은 비단 재활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 확충 요구'를 거부한 것, 연세대학이 '학내 장애인 시설 개선요구'를 거부한 것, 연세재활학교 학칙개정을 거부했던 것들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이윤추적을 안정적으로 극대화 하려는 자본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산의 영역에서 배제되며, 존재자체가 은폐된다. 장애인의 주체적 생존을 힘들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을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이 알아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개별 가정으로 전가된 장애인 아동의 육아, 교육 등 생활전반에 대한 부담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어머니)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것은 재활학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재활학교 어머니들은 장애인 아동의 생활 전반을 하나하나 신경 쓰며, 교사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시간은 한시도 아이의 걸을 떠나지 못 하였다. 천막 농성을 하며 장애인 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조차도 '어머니'만(천막농성에 참여한 학부모는 거의 전부 어머니였다.)의 역할이었다. 장애인의 주체적 생존과 안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가정의 어머니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연세재활학

교 문제에서 보여진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통해 견고하게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체계적 억압'은 여성해방과 장애인 해방, 노동해방이 왜 분리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총자본과 개별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교육자본(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 그러기에 연세재활학교 문제와 연세대학교 내 장애여성의 교육권 문제, 여성 교육권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연세재활학교 투쟁은 재활학교 학생과 학부모,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연대하여 교육자본인 연세대학을 압박하는 교육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었다.

연세 재활학교 투쟁은 이렇듯 다양한 억압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 되어있는지 잘 보여주었으며 그것들을 통해 연대의 필요성을 반증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적 억압에 맞서기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떨어진 것이 아님을 인지하며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 나가야한다. 우리의 연대는 끝나지 않았다.

- 1) 사회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노동력 재생산비용은 당연히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로 집중된다. 따라서 구성원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은 자본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교육비용, 육아비용, 노인부양 비용, 장애인 복지비용 등 자본가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개별 가정에 전가한다. 그것을 통해 자본가들은 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윤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2) 대학교는 사회 체제 속에서 기능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생산력 발전을 위한 기술발전을 기업을 대신하여 행하며, 학습 받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전체 자본의 이윤추적으로 안정적 늘어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 정부지원금, 기업 기부금 등을 통해 교육 자본은 스스로의 자산을 늘려나간다. 따라서 대학교는 총자본으로서 그리고 개별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한미 FTA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2006년 6월 시작된 한미FTA가 지난 2일 타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내 말했다. "근거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 민족적 감정과 정략적 이유"로 FTA에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 왜국도 매국도 감정적인 주의주장만으로 규정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협상결과문이 공개되어 한미FTA의 모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한미FTA의 불평등성에 절기게 반대해온 그 차가운거리의 사람들과 허망히 하늘만 바라보던 농민들 앞에서 한번이라도 진지해 볼 수 있다면 대통령은 그와 같은 그날의 자신감을 조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협상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한국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만은 지켜냈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쌀이라는 품목은 애초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전분야는 원래 무관세 혹은 평균 2%의 관세밖에 없었기에 이 부분 역시 성과라고 하기에 정말 민망한 것이다.

생색중에서도 가장 내세우는 것. 자동차, 섬유분야는 어떠한가.

자동차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현지 생산 비율이 점차 높아져 3년 후엔 전체 수출량의 70%가 현지에서 생산된다. 관세철폐효과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아주 멀기만 하다. 25%관세가 낮아진 특정 트럭의 경우 올해 단종될 기종인데,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것이었으며, 한국협상단이 "한국의 국민들"과 협상하는데 이용한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섬유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다. 미국에서는 안포워드라 하여 원사의 생산지 기준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스웨터는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인하/철폐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내 대부분의 섬유업체가 중국산 원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포워드 완화 품목은 6개 밖에 따내지 못하여 사실상 미국시장을 뚫지 못한 것이 된다.

자동차 섬유가 이러한 진데, 정부 스스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 약품 분야와 농업분야는 초토화라고 할 수 있다.

약품분야에서 타결된 짧아진 특허심사 기간과 연계된 신약특허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의약품계의 사정상 미국보다 발빠르게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으며, 강화된 약품 특허권은 특허를 다수 보유한 미국 다국적 제약 회사의 독점적 권리를 만들어내어 국내 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자신들이 만든 약과 같은 약은 물론 비슷한 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례적인 독소조항이다.

의약이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이미 많은나라에서 의약을 상품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고 무상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마치 협상에서 얻어온 것 처럼 이야기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즉 가격대비 효능이 좋은 약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이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이미 전세계 80%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또한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함으로써 인해 세계최고의 약값을 자랑하는 미국의 횡포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농가에서는 벌써부터 폐업이야기가 일상대화가 되어버렸다. 이미 송아지는 시장에서 가격이 급하락하거나 거래가 끊기고 있다.

제주감귤을 보호해준다는 오렌지분야 관세현상유지는 감귤이 생산될 시기만으로 한정 짓고 있다. 알다시피 제주감귤은 생산시기에만 유통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렌지 주스를 비롯한 10가지 품목은 즉각 관세가 철폐되어 이 부분의 농업은 이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현재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6개에 불과하다.

94년 NAFTA체결 이후 멕시코 영화는 전해 평균 100편에서 4편으로 줄었다. 자국 영화에 50%이상의 극장을 보장하던 스크린쿼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 영화는 질적으로 결코 낮지 않다. 이것은 헐리웃 영화가 작품의 대중동원정도를 영화의 질과 완성도가 아닌 자금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사정에 조금도 비껴가지 않는다.

개방과 경쟁이 능사라고 한다면 멕시코 사람인 "바벨"의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서러운 10년을 설명해 줄 말은 아무 것도 없다.

거의 다 주고 거의 얻어오지 않는 이 비교우위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협상에서 원원전략은 대통령의 지지도 10%상승만을 의미하는 듯하다.

얼마 전 KBS 여론조사 결과 이 협상에서 미국이 더 이익이라는 의견은 50.5%, 한국이 더 이익이라는 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이미 밑바닥을 친 지지도가 이 거대한 찬반의 분수령 속에서 조금 올랐다고 하여 "배짱좋은" 대통령이 그리 만족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불공정한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미 의회가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추가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이후에도 정치경제적 예측의 심화는 더 깊어 질 수 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있다. 협상의 어두운 뒤통수는 얼

마든지 열려있다. 국회비준을 막아내는 것이 지금의 방법이라 하겠다.

협상 이후 대통령에게서, 우리는 초중고교 졸업이후 오랜만에 제법 지루한 훈화를 들을 수 있었다.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끼의 애비는 제 토끼의 생존을 위해 추운 겨울 자신의 따뜻한 털로 아직 송송한 작은 새끼의 몸을 가리며, 봄이 오면 산비탈을 빠르게 오르는 연습을 함께 한다. 호랑이와 대면케 하여 사망직전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강심장 토끼로 만드는 일은 아직 목격된 바 없다.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라고도 말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기름진 대평원과 태양, 헬기로 사료를 뿌리는 초대형 축산공장은 농부의 자신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예산독립영화감독의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감은 수천억 제작비용의 헐리웃 영화와 만나기 전의 일일 뿐이다.

마이너스통장 부여받고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과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속의 노동자, 학생들은 제 나라 대통령의 훈계와 편찬을 듣기에는 이미 여유롭지 않다.

자동차 판돈은 결코 가축농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약자가 철저히 도태되는 이 세상에 도래할 성장이 만약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성장이라고 우리는 이를 지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일상적 국가살인을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 부쳐

연세학생모임 R4

얼마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이주노동자가 질식하여 숨지고 1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이는 출입국관리소의 인간사냥과 반인권적 보호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내는 고용허가제가 빚어낸 참극이다.

언론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한 이주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출입국관리소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들의 책임을 덮으려 할 뿐이었다. 유가족마저 현장접근을 통제당했으며, 현장 조사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없었다. 법무부의 진상조사단은 현장에서 라이터를 발견했다며 책임을 한 이주노동자에게 지우고 있지만, 과학수사대의 현장검증에서 그 라이터는 발견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불을 질렀느냐가 아니다. 보상금을 줘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당국이야 누가 불을 질렀는지가 중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은 강제단속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은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사냥식 단속추방에 목숨을 잃었다. 2007년 1월 중국 이주노동자 여풍산씨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2006년 4월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푸아르씨가 인천 출입국 관리소 단속반을 피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했으며 2006년 2월에는 터키출신 코스쿤 살렘씨가 수원출입국 관리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2003년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으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기 충격기와 그물 등을 사용한 무차별적 인간사냥으로 인한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매년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소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기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3년간 일을 하고 본국으로 떠나야

하는 제도인데, 이때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해고당하면 그 노동자는 출입국에 의해 강제출국이 된다. 이를 빌미 삼아 각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과 인권유린으로 죽임을 당하고, 한편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아주 손쉽게, 더 많은 착취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해고는 너무나도 용이하며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도 용이하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노동조건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에 이주노동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분열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거주/이주 노동자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이다. 심지어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면 그 투쟁을 분쇄하기 위한 대체인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아니 사람으로도 대하지 않은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항시적으로 위협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출입국 직원들이 쳐들어온다. 그곳이 공장이든, 지하철역이든, 샤워실이든, 투쟁의 현장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단속을 피해 목숨을 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미 일상적이다. 단속 추방이 계속되는 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수많은 인간이, 이 땅의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의 인간이 비인간적, 살인적 단속을 피해 목숨을 버려야만 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일상을 향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과 그 자본을 보위하는 국가의 잇속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만이 그 길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죄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야만적인 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자본의 공세의 맞서 노동허가제를 쟁취 투쟁을 펼쳐나가자. 또한 만인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 MAYDAY에 책 한권 어때요?

“레즈를 위하여”(황광우, 장석준)

인문계열 07 정 윤 호

X세대 라고 본질적으로 분류화된 개념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자주 접하며 일상적인 대화에 까지 즐겨 쓰곤 한다. '레즈를 위하여'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레즈(Reds)'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을 주도했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세대분류가 현실적으로 딱 부러지는 형태로 나타나 진정 기성과의 단절화된 차별성을 의미하는가? 저자의 이러한 문제제기 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로 압축된다. 가장 비정치적인 활동인 축구 경기에서 가장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저자가 느꼈던 감정은 경악과 희망이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무의식 중에 뇌리에 박힌 금기의 붉은 색을 공공연하게 복장화하고, 파시즘 내에서도 장려될 법한 국호 '대~한민국!'을 외치는 젊은 세대의 상반성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재료로 이용되는 현실, 그 속에서 사회의 선배들이 남긴 사회적 찌꺼기가 '레즈'라는 이미지로 구현된 것이다. 또 그것이 찌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찌꺼기마저 국으로 끓여 먹으려는 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 수 있을까 라는 저자의 의식이 글 속에서 은연중 고심어린 흔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레즈'는 정녕 찌꺼기인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붉은 색에 대한 거리낌없는 접근, 그것이 '레즈'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다. 여기서 희망을 엿보는 것이다. 붉은 색이 무섭고 언급조차 하기 싫은 기성세대가 아니기에 이제는 '빨간 책'도 좀 읽어보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사회,경제 이념이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책이라는 점에서 공산당 선언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렇지만 굳이 저자가 '빨간 책' 중에서 선정한 이유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분량 자체가 적고 표현이 간결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와닿지는 않는 체감의 한계가 있기는 하다. 이 책은 이런 체감의 문제를 때로는 한 문장씩, 때로는 한 문단씩 공산당 선언의 원전을 발췌하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저자의 경험과 버무려 해결한다. 그렇다고 '주해서'처럼 쉽게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릿 속에 넣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살다보니 문득 그 구절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경험적 측면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나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노동, 환경, 운동, 양심 그리고 나아가 가족의 문제에 까지 많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은 독자가 원하는 것을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비취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읽는 와중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경험과 삶을 되돌아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산당 선언'을 너무 경험적인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에도 저자 나름의 대처를 해뒀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개정된 번역본과 이론적 독해서가 실려있다. 아카데미한 접근에 있어서도 탄탄한 대응을 갖춘 것이다.

공산당 선언이 젊은이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문제에서도 고찰의 장이 되게끔 하는 새로운 시도, '모래시계 세대'에게서 사회의 주역 뿐 아니라 그들의 고뇌와 문제 의식마저도 같이 이어받아야 할 레즈에게 치열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하는 제목 그대로의 '레즈를 위한(For Reds!)' 글이다.



MAYDAY OF THE WORLD



▶유럽의 MAYDAY 행진 ▶“세상을 다 가져라~”



▶MAYDAY의 기원지 시카고 ▶MAYDAY에 온 B-BOY

■ MAYDAY 그림하나, 기억하나



메이데이가 곧 다가옵니다.

각종 차별과 부당함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고민들의 소통과 연대 속에서, 표현 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dit by MOK